

IDC업계 내년 부가서비스 역점

매니지드·로드밸런싱 등 다양한 상품 확보

기존·신규 고객사 대상 내부 세일즈 강화

내년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업계의 역점 사업은 '부가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스아이넷·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아이비알 등 IDC 사업자들은 올해 잇따라 선보인 매니지드 등 부가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기존 입주사와 신규 고객사를 대상으로 내부 세일즈 강화와 관련 인력양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IDC업계가 부가서비스에 집중

로 한 것은 내년도 신규수요가 올해 수준에 못미친다는 판단 아래 사업 전략을 공간임대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전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매니지드 서비스는 상면과 네트워크를 임대해주는 단순 공간임대형 코로케이션 서비스에 비해 IDC 단위 면적당 마진율이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미 가입자를 일정한 수준 이상 확보한 사업자들에게는 공간대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한국에스아이넷(대표 채승용

http://www.gihc.net)은 이달 중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서비스시스템을 묶어 IT업종별, 서비스 규모별로 특화된 패키지형 상품으로 재구성한 '뉴매니지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전담할 전문엔지니어 22명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백업과 스토리지 네트워크 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했다. 또 현재 해커스랩 등 전문업체와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보안서비스를 앞으로 자체 전문인력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백업장비를 도입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대표 김동일 http://www.prism.co.kr)는 올해 들어 침입탐지시스템(IDS)·로드밸런싱 등 35개 부가서비스를 확보하고 내년부터 기존 고객사를 대상으

로 내부 세일즈를 강화할 방침이다. 프리즘은 이를 위해 매니지드서비스 강화와 IT컨설팅에 집중하는 한편 입주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명회를 개최해 부가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프리즘은 내년 매니지드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약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이비알(대표 류지선 http://www.ibrglobal.com)은 올해 선보인 서비스품질보증제도(SLA)와 이중화로드밸런싱, 고객전담제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내년 시장에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여유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확보된 고객사를 대상으로 들어 침입탐지시스템(IDS)·로드밸런싱 등 35개 부가서비스를 확보하고 내년부터 기존 고객사를 대상으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PDA용 보안솔루션

5개 증권사에 공급

소프트포럼

공개키기반구조(PKI) 전문업체 소프트웨어(대표 안창준 http://www.softforum.com)은 세종증권·교보증권·KGI증권·한화증권·제일투신 등 5개사에 PDA용 무선증권거래 보안 솔루션인 제큐어모바일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제큐어모바일은 무선 증권 거래 시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해 중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또한 공인인증서와 연동, 거래사실 부인이나 데이터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포털에 모바일VPN 공급

엠아이시큐리티

엠아이시큐리티(대표 이일수 http://www.misecurity.com)는 포항제철과 모바일 가상사설망(VPN) 클라이언트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엠아이시큐리티가 공급하는 무선 VPN 클라이언트 제품인 'WINGS-MV'는 PDA상에서 무선환경을 이용해서 업무를 할 때 기존의 VPN 그룹웨어와 연동돼 보안을 유지하는 제품이다.

엠아이시큐리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보안솔루션은 포항제철내 무선하역시스템의 유무선 통합환경 업무 구축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oo@etnews.co.kr〉

넷피아, 한글메일 서비스 '첫 선'

"홍길동@전자신문"

손쉽게 유무선 송수신

인터넷 주소입력 창에 한글메일 주소 입력만으로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처음으로 선보였다. 인터넷키워드 전문업체 넷피아닷컴(대표 이관정)은 메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영문 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도 웹브라우저에 '한글@전자신문'처럼 한글 표기만으로 메일을 이용할 수 있는 '한글메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선보인 한글메일은 기존 영문메일을 기억할 필요 없이 '한글@전자신문'처럼 한글표기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핸드폰과 PDA 등 무선기와 연결해 유·무선 상에서 한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한글@한글 방식의 플러그인 프로그램 설치방식과 웹메일방식 두 가지로 선보인 이 제품은 한글인터넷 주소를 기반으로 해 누구나 메일 주소를 쉽게 기억할 수 있으며, 한글 인터넷 주소만 등록되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또 여러 사람을 하나의 메일 계정으로 묶는 메일링 그룹을 만들어 기업에서 부서별로 메일을 보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미 건국대·경희대·한양대·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의 4개 대학을 비롯해서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 공동 테스트를 마쳤다. 넷피아는 이들



넷피아닷컴이 4일 한글 주소로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한글메일서비스를 선보였다. 사진은 한글메일서비스 시연 모습.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내년 1월부터는 상용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넷피아측은 "한글메일서비스 구현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주소의 한글화를 계속 방해해 지연되었다"며 "이번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관정 사장은 "이번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주소와 함께 메일 주소까지 자국어로 서비스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넷피아는 이날 한글메일 수 익금 일부를 통일기금으로 기탁키로 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조인식을 가졌다.

〈강병준기자 bjkgang@etnews.co.kr〉

한국통신에 VPN 공급

시큐아이닷컴

정보보안 업체 시큐아이닷컴(대표 오경수 http://www.secu.com)은 한국통신에 가상사설망(VPN) 시큐아이VPN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큐아이VPN은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로드밸런싱,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능 등이 통합된 하드웨어 일체형 제품으로 IPSec, IKE 표준으로 설계돼 전세계 유명 VPN제품과 상호연동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표준 암호방식(SEED)의 전용 하드웨어 칩을 사용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다이제스트

'엠비즈' 서비스 오픈

■ 메일솔루션 전문업체 엔나라(대표 한익식 http://www.mnara.net)가 메일 호스팅에 그룹웨어 기능을 추가한 '엠비즈'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메일기능 외에 조직도, 토론실, 파일과 주소록 공유, 일정관리, 전자결재, 백업, 실시간 메일 송신 알림 등을 지원한다.

담배인삼공사 흡피 재구축

■ 웹에이전시 디자인스톰(대표 정숙 http://www.designstorm.com)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홈페이지를 재구축했다. 새로 구축된 사이트는 콘텐츠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자동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운드와 역동감 있는 화면 구성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와의 양방향성을 높였다. 또 상하위 메뉴끼리 링크 채널을 개선해 어떤 화면에서도 상위메뉴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웹젠과 다운로드 센터 계약

■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업체 씨디네트웍스(대표 고사무열 http://www.cdnetworks.co.kr)가 온라인 게임 '뮤' 서비스업체 웹젠과 전용 다운로드 센터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휴로 씨디네트웍스는 넥슨·위즈게이트·엑트즈소프트·제이씨엔터테인먼트 등 10개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32개 게임에 다운로드 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마스 '눈' 이벤트 마련

■ 결혼정보 전문회사인 오늘(http://www.eonul.com)은 쌍용화재와 제휴,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서울에 1.5cm 이상 눈이 내릴 경우 태국 파타야 여행을 무료로 보내주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23일까지 열리며 가입회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방콕 파타야 미팅여행(3박5일)을 무료로 보내주며 캠코더·DVD플레이어·정동진 열차표 등 푸짐한 경품도 지급한다.

온라인 명함 제작 서비스

■ 드림엑스(대표 김일환 http://www.dreamx.net)가 트리트소프트웨어와 제휴해 4일부터 이용자의 캐리커처나 사진을 담은 프로펠 명함을 온라인으로 제작해 배달해 주는 'P카드(프로펠카드)' 서비스에 나선다. 'P카드' 서비스는 트리트소프트웨어의 명함제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모니터를 보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명함의 캐릭터와 이미지 및 크기·재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제작할 수 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용

암호키관리 기반구조 개발

KISA, 연내 인증기관에 기술이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조휘갑 http://www.kisa.or.kr)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10월부터 실시하는 '전자민원행정서비스'용 '암호키관리기반구조(KMI:Key Management Infrastructure)'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KISA가 개발한 KMI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전송받을 때 본인의 신상정보를 제3자가 보지 못하도록 전자서명을 암호화하고 개인 재산이나 납세내역 같은 전자문서 내용을 암호화해 철저한 비밀 보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KMI기반의 전자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는 전자문서 내용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비밀통신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KMI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암호키를 분실할 경우 즉시 본인이 자신의

암호키를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 특징이다.

정보통신부와 KISA는 KMI기술을 연내에 공인인증기관들에게 이

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증서 발급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증서 발급은 정보통신부에서 준비중이다.

한편 전자민원행정서비스는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이 공동으로 2000년부터 추진중인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민원 처리를 할 필요없이 접수에서 결과 통보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방민원서비스의 구현을 의미한다.

〈주문정기자 mjoo@etnews.co.kr〉

해피머니, 소프트윈 인수

디지털콘텐츠 유통·지불 솔루션사업 진출

온오프라인 통합 상품권 발행업체 해피머니아이엔씨(대표 최병호 http://www.happymoney.co.kr)가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인 소프트윈(대표 서주석 http://www.softwin.co.kr)을 인수하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지불 솔루션 사업에 진출한다고 4일 밝혔다.

최병호 해피머니아이엔씨 사장은 "소프트윈의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체 지분의 20%(114만 4000주)를 확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병호 사장은 소프트

윈 대표를 겸직, 경영을 맡게 되고 인수 후에도 양사는 독립법인으로 운영된다. 이번 인수로 해피머니는 소프트웨어의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유통망과 영업 네트워크를 통해 자사가 발행하는 상품권과 디지털 콘텐츠, 지불 솔루션의 판로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온, 오프라인 통합상품권인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로 해피 21 외식상품권과 이후 문화상품권으로 일반에 알려져 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소프트가족, 중화권시장 진출

홍콩·상하이에 현지법인 ARS 결제시스템 공급

ARS결제 전문업체인 소프트가족(대표 성현만 http://www.softfamily.com)이 최근 홍콩에 현지법인 '소프트패밀리 홍콩'과 중국 상하이에 '소프트패밀리차이나'를 설립하고 중화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프트가족은 중국에 ARS 결제 시스템을 제공, 인터넷 유료 콘텐츠 결제수단을 공급해 중화권 소액결제 시장에 본격 진출하

게 됐다. 소프트가족은 또 국내 유무선 콘텐츠를 중국에 수출하는 콘텐츠 신디케이터 사업도 함께 시작할 계획이다.

소프트가족은 자사 결제 서비스인 '이발링'을 이용하는 고객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콘텐츠 판매에서부터 중화권내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 다양한 콘텐츠 신디케이터 사업을 통해 콘텐츠 유료화 시장을 선점한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업무제휴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